

# 19세기 전반 의궤 반차도의 신경향

제 송 희 \*

I. 머리말
II. 의궤 반차도의 제작 양상과 특징
1. 흥례의 分兒班次圖 제작
2. 가례의 군사 행렬 증대와 시각화
3. 연향 의궤의 文班次圖 수록
III. 의궤 반차도 화풍의 신경향
1. 印刻技法의 발전
2. 인물 조형의 변화
3. 界畫技法의 적극적인 활용
IV. 맺음말

## I. 머리말

반차도는 조선시대 국가의례에 동원되는 관원과 시위군, 가마류와 의장 등을 정해진 차례대로 나열한 시각자료이다. 반차도에 대한 미술사 분야의 연구로는 책례·가례에서 먼저 진행되었고, 판화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개별 반차도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기도 하였다.<sup>1</sup> 나아가 반차도의 제작 목적을 규명하고 흥례·책례·가례 등 전체 의례 반차도를 포

\* 한국학중앙연구원

<sup>1</sup> 박정혜, 「朝鮮時代 冊禮都監儀軌의 繪畫史의 研究」, 『韓國文化』 14(1993), pp. 521-551; 박은순, 「朝鮮時代 王世子冊禮儀軌 班次圖 研究」, 『韓國文化』 14(1993), pp. 553-612; 李成美, 「藏書閣所藏 朝鮮王朝 嘉禮都監儀軌의 美術史의 考察」, 李成美·姜信沆·劉頌玉, 『藏書閣所藏 嘉禮都監儀軌』(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33-116; 李成美, 「朝鮮王朝 御眞關係 都監儀軌」, 李成美·姜信沆·劉頌玉, 『朝鮮時代御眞關係都監儀軌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 1-136; 정병모,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板畫史의 研究」, 『文化財』 22(1989), pp. 96-121; 박은순, 「조선후기 의궤의 판화도식」, 『국학연구』 6(2005), pp. 249-308.

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2</sup> 그리하여 반차도는 국가의례에 禮貌와 威儀를 갖추기 위해 미리 제작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고 의식에 활용된 후 의궤에 수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반차도 제작은 화원의 기본 업무였으며, 보통 前例에 따라 제작함에 따라 화풍은 보수성과 도식성을 띠는 경향이 강하였다. 또한 18세기 이후 강한 왕권을 지향한 국왕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반차도들이 속속 제작되었다.

19세기 전반 즉 순조(재위 1800-1834)와 헌종(재위 1834-1849) 연間は 왕권 약화와 세도 가문의 정국 주도, 사회적 모순 심화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다. 순조는 11세, 헌종은 8세에 왕위에 올랐고 집권 초반에는 왕대비 貞純王后(1745-1805)와 純元王后(1789-1857)의 수렴청정을 거쳤다. 왕대비들은 미미한 왕권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어린 국왕의 가례에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여 성대한 가례 행렬을 편성하였고, 국왕들은 친정 시작과 동시에 왕실 어른들을 존송하는 행사와 연향을 거행하여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였다. 이러한 왕실의 상황과 왕권의 성격은 궁중회화와 반차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9세기 전반의 반차도는 행렬이 대폭 길어지며 전체 의궤 반차도의 역사에서 조형적인 완성도와 사실성, 세련미 면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에 도달한다. 영조와 정조 같이 강한 왕권이 부재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렇듯 행렬의 변화와 조형적 발전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그 원인을 왕실의례 및 궁중회화 상황과 관련지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비록 강한 왕권은 아니었어도 국왕 및 왕실에서 중시한 의례에서 반차도 행렬에 변화가 일어나며, 그러한 상황이 화원들의 繪事의 방향을 규정짓고 반차도의 조형에도 변화를 가져왔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의궤 반차도의 특성을 규정지은 19세기적 맥락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동시에 반차도를 통해 이 시기 기록화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 Ⅱ. 의궤 반차도의 제작 양상과 특징

19세기 전반의 반차도는 왕실의 국상과 부모, 가례와 책례, 尊崇·追崇 의례와 관련한 39종의 의궤에 수록되어 있다(표 1 참조).<sup>3</sup> 의례별로 살펴보면, 국장(예장)·부모·천릉 등 흥

2 제송희, 「18세기 행렬반차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273(2012), pp. 101-132; 제송희, 「조선시대 儀禮 班次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3).

3 그의 두루마리 형식의 반차도 5건이 있으나 의궤 반차도와 유사하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제송희, 위의 논문(2013), p. 346 참조.

표 1 19세기 전반 의궤 반차도 목록

	의궤명	연도	분류	반차도 면수	명칭*	참고
1	貞純王后孝懿王后尊崇都監儀軌	1802(순조2)	존승	12	冊寶自都監詣闕班次圖	
2	正祖祔廟都監儀軌	1802(순조2)	부모	24	神輦詣宗廟班次圖	
3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1802(순조2)	가례	52/67	친영반차도	분상용/어람용
4	貞純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1804(순조4)	존승	8	책보자도감에결반차도	
5	貞純王后國葬都監儀軌	1805(순조5)	국장	46	발인반차도	
6	貞純王后殯殿加上尊號都監儀軌	1805(순조5)	추승	8	책보자도감에결반차도	
7	貞純王后祔廟都監儀軌	1807(순조7)	부모	44	신련예종묘반차도	
8	孝明世子冊禮都監儀軌	1812(순조12)	책례	12	敎命冊印詣闕班次圖	
9	惠嬪襄禮都監儀軌	1816(순조16)	예장	46	발인반차도	分兒班次圖** 11건
10	惠嬪祔宮都監儀軌	1818(순조18)	부궁	28	神輦詣廟宮班次圖	
11	孝明世子嘉禮都監儀軌	1819(순조19)	가례	52	친영반차도	
12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1821(순조21)	국장	40	발인반차도	분아반차도 11건
13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1821(순조21)	천릉	28	발인반차도	분아반차도 9건
14	綏嬪葬禮都監儀軌	1823(순조23)	예장	34	발인반차도	분아반차도 7건
15	孝懿王后祔廟都監儀軌	1823(순조23)	부모	24	신련예종묘반차도	
16	綏嬪入廟都監儀軌	1825(순조25)	입묘	20	신련예묘궁반차도	
17	純祖純元王后上號都監儀軌	1827(순조27)	존승	14	책보자도감에결반차도	
18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순조27)	연향	1-2	文班次圖 6종	
19	戊子進爵儀軌	1828(순조28)	연향	1-2	문반차도 4종	
20	己丑進儀儀軌	1829(순조29)	연향	1-2	문반차도 6종	
21	孝明世子禮葬都監儀軌	1830(순조30)	예장	50	발인반차도	분아반차도 11건
22	憲宗王世孫冊儲都監儀軌	1830(순조30)	책저	12	교명책인에결반차도	
23	孝明世子入廟都監儀軌	1832(순조32)	입묘	28	신련예묘궁반차도	
24	純祖國葬都監儀軌	1835(헌종1)	국장	64	발인반차도	분아반차도 11건
25	翼宗追崇都監儀軌	1835(헌종1)	추승	32	孝和殿奉安時班次圖	
26	宗廟永寧殿增修都監儀軌	1836(헌종2)	종묘	113	神主移安還安班次圖	
27	純祖翼宗祔廟都監儀軌	1837(헌종3)	부모	46	신련예종묘반차도	
28	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	1837(헌종3)	가례	68	친영반차도	
29	純元王后神貞王后尊崇都監儀軌	1837(헌종3)	존승	15	책보자도감에결반차도	
30	太祖影幀摸寫都監儀軌	1838(헌종4)	영정	18	潛源殿影幀奉還時班次圖	
31	純元王后上號都監儀軌	1841(헌종7)	존승	10	책보자도감에결반차도	
32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1843(헌종9)	국장	52	발인반차도	
33	憲宗孝定王后嘉禮都監儀軌	1845(헌종11)	가례	80	친영반차도	
34	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1846(헌종12)	천릉	44	발인반차도	
35	慶嬪嘉禮謄錄	1847(헌종13)	가례	28	詣別宮班次圖/詣闕班次圖	
36	純祖純元王后翼宗神貞王后上號都監儀軌	1848(헌종14)	존승 추승	32	追上冊寶詣太廟班次圖/加上冊寶詣闕班次圖	
37	戊申進儀儀軌	1848(헌종14)	연향	1-2	문반차도 4종	
38	國朝寶鑑監印廳儀軌	1848(헌종14)	纂修	20	國朝寶鑑進書時班次圖/國朝寶鑑宗廟奉安班次圖	
39	憲宗國葬都監儀軌	1849(철종0)	국장	70	발인반차도	

\* 명칭은 행렬의 성격 및 의궤의 기록을 참고하여 필자가 붙였다.

\*\* 분아반차도는 어람용 반차도와 함께 각 의궤에 기록되어 있는 의식 전 반차도 제작 내역이다.

례에서 17종, 존숭·추숭 의례 8종, 가례 5종, 연향 4종, 책례 2종, 기타 3종으로 나뉜다. 이 반차도들은 대체로 관행에 따라 제작된 것이지만 존숭·추숭 의례 반차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sup>4</sup> 또한 흥례에서 分兒班次圖가 제작된 점, 가례에서 군사 행렬이 증대한 점, 연향 관련 의례에 文班次圖가 수록된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 특징은 당시 왕권 및 왕실에서 중요시한 의례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1. 흥례의 分兒班次圖 제작

이 시기 흥례 반차도는 1805년 정순왕후의 국장을 필두로 8건의 국장·예장 관련 발인 반차도가 있다. 또한 이들의 喪期가 끝난 후 신주를 종묘나 廟宮으로 모셔 가는 神輦詣宗廟(廟宮)班次圖 7건이 제작되었다. 그외 정조의 健陵과 翼宗의 綏陵을 遷奉할 때의 반차도 2건이 있다.

흥례 반차도에서 주목할 점은 의식 전에 어람용과 함께 관원용 分兒班次圖가 제작된 것이다. 의식 전에는 보통 어람용 1건, 왕세자나 왕세손이 있을 경우 예람용 1건, 도감용 1건을 제작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러한 관행을 벗어난 예는 영조와 정조 대의 일부 의례에서 확인된다. 1757년 仁元王后 국장 시에 어람용 외에 ‘총호사와 3제조용’으로 4건이 더 제작되었고, 1789년 장헌세자의 永祐園을 화성으로 천봉하면서 분아반차도란 명칭으로 11건이 제작된 바 있다.<sup>5</sup> 영조는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이던 인원왕후의 발인 행렬을 위해, 정조는 생부 장헌세자의 遷園 행렬을 위해 관원용 반차도를 추가로 제작케 한 것이다. 이는 국왕이 중시한 의례에서 반차도를 여러 벌 마련하여 행렬 편성에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행렬에 위의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분아반차도는 순조 친정 이후에 거행된 惠嬪 襄禮와 효의왕후 국장, 정조 건릉 천봉, 綏嬪 장례, 孝明世子 예장, 순조 국장 등 6건의 의례에서 제작되었다(표 1 참조). 각 의례에는 “堂上·郎廳 분아반차도”라고 기록되어 있어 분아반차도가 당상과 낭청용 반차도임을 알 수 있다.<sup>6</sup> 이때의 당상·낭청은 발인 행렬의 반차를 주관하던 국장(예장) 도감

<sup>4</sup> 尊崇·追崇 의례의 비중이 높은 것도 19세기 왕실 의례의 주요 특징이나 이 경우 冊·寶를 陪進하는 간단한 행렬로 구성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계송희, 앞의 논문(2013), pp. 177-182 참조.

<sup>5</sup> 『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 4책(奎13624-4), pp. 45-46.

<sup>6</sup> 『孝明世子禮葬都監儀軌』 2(奎13718-2), p. 82. “同日 本房所掌 發引班次圖 當爲修正以入 而大殿進上一件 世孫宮供上一件 所入物力 及堂上郎廳分兒十一件”; 『純祖國葬都監儀軌』 2(奎13669-2), p. 77. “本房所掌 發引班次圖 當爲修正以入 而大殿進上一件 大王大妃殿進上一件 堂上郎廳分兒十一件 所入物力 參考前例磨鍊 後錄 仰稟爲去乎 依此捧甘取用何如 題辭內 依”

의 당상과 낭청이거나 국장·빈전·산릉 3도감의 당상과 낭청이었을 것이다. 발인 행렬에 3도감의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815년 12월 15일 혜빈 洪氏(1735-1815)가 창경궁 경춘전에서 흥서하자 같은 날 도감을 설치하면서 “都監 堂郎”을 啓下하였다.<sup>7</sup> 이날의 실록 기사를 통해 “金載瓚을 총호사와 3도감 도제조로, 金羲淳·鄭尙愚·李好敏을 빈궁 제조로, 鄭晚錫·韓用鐸·閔命燻을 襄禮 제조로, 朴宗慶·林漢浩·李魯益을 園所 제조”로 삼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이때의 도감 당량은 빈궁·양례·원소 세 도감의 당량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분아반차도 11건은 총호사 1인, 빈궁도감 제조 3인, 양례도감 제조 3인, 원소도감 제조 3인을 위한 반차도이며, 여기에 도감용 1건이 더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왕과 왕비의 국장시에는 빈전·국장·산릉 도감으로 명칭이 바뀌지만 동일하게 제작되었고, 건릉 천봉과 수빈 예장의 경우 도감의 규모가 작아졌으므로 반차도의 수량도 2-4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제작된 분아반차도는 발인 행렬 편성 시 반차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각 도감에서는 이들 지침을 토대로 발인 행렬에 편성되는 산하의 관원과 기물들을 준비시켰고 국장(예장)도감에서 행렬 전체를 총괄 지휘하였던 것이다.<sup>9</sup> 분아반차도는 순조 친정과 함께 제작되기 시작하여 순조 국장 이후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가운데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다.<sup>10</sup> 19세기 전반의 분아반차도는 先代의 예를 좇아 왕실 흥례에 지극한 예를 표하려 한 순조의 의지가 낳은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왕실 흥례에 예모를 다하려 한 순조의 노력은 혜빈 홍씨, 수빈 朴氏(1770-1822), 효명세자의 흥례 반차도에서도 나타났다. 혜빈은 세자빈 신분의 순조의 조모였고, 수빈은 후궁 신분의 순조의 생모였다. 순조는 영조대 이래 왕실의 尊王的 禮學 전통에 따라 이들의 喪을 가능한 한 후하게 치르려 하였다.<sup>11</sup> 혜빈의 경우 정조가 생부 장헌세자를 추승한 경모궁·영우원의 예를 따라 성대히 거행할 수 있었으나 후궁 신분이던 수빈의 경우 前例가 없었다. 이에 대해 순조는 혜빈의 예를 준용하고자 하였다.

1822년 12월 26일 수빈이 창경궁 寶慶堂에서 흥서하자 순조는 殯宮을 正殿인 환경전

7 『惠嬪襄禮都監儀軌』1(奎13608-1), p. 9. “乙亥 十二月十五日 都監堂郎啓下 吏曹舉行”

8 『순조실록』 권18, 1815년(순조 15) 12월 15일(乙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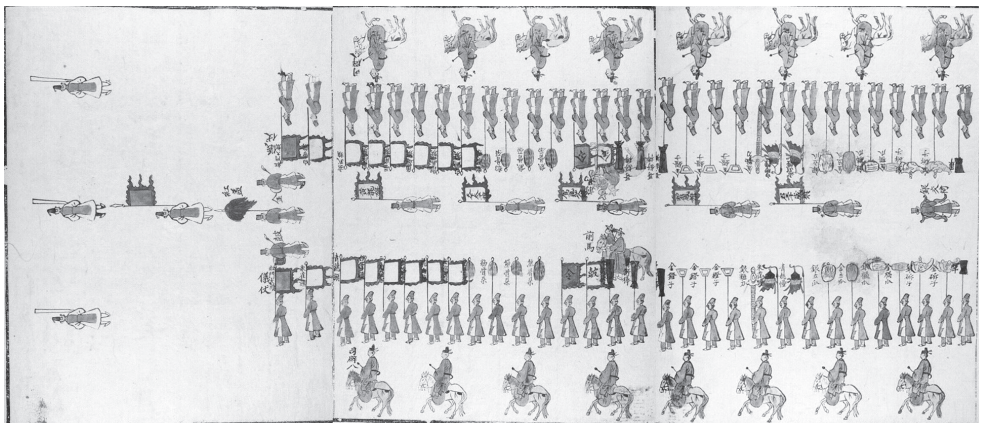
9 제송희, 앞의 논문(2013), p. 40.

10 위의 논문, p. 147.

11 영조의 尊王的 禮學 전통에 대해서는 정경희, 「英祖의 禮學」, 『규장각』 25(2002), pp. 201-226 참조.

에 마련하고 궁내의 도총부에 魂宮인 顯思宮을 설치하였으며 묘소를 徽慶園으로 하였다.<sup>12</sup> 이어 휘경원의 園官으로 참봉을 차출하였는데 이는 후궁의 빈궁과 혼궁을 궐내에 두기로 한 결정과 함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신하들은 “빈궁의 처소가 예에 지나친 바가 있더니 점차 확대되어 원관의 칭호가 제도에 어긋나는 등, 한층 더 심해져 끝이 없습니다” 하고 거세게 항의하였다.<sup>13</sup> 그러나 순조는 상소를 올린 교리 嚴燾, 부수찬 權敦仁, 대사헌 權常愼, 영의정 金載瓚 등을 모두 귀양 보내는 강경조치로 대응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순조는 總麻三月의 服制가 끝난 뒤에도 白衣·白笠 차림의 心喪服으로 3년 상기 동안 혼궁에 예를 표하며 자식으로서의 情理를 다하였다. 이어 3년상 후에는 별묘인 景祐宮을 영건하여 신주를 모시고 휘경원의 원관에 守 1員, 參奉 1員을 둬으로써 현릉원과 같은 격을 부여하였다.<sup>14</sup> 요컨대 순조는 영조가 사친에게 적용한 宮園制보다 격상된 장헌세자의 예를 적용하여 수빈의 장례를 강행한 것이다.<sup>15</sup> 이렇듯 사친에 대한 상에 지극한 예를 표하는 과정에서 후궁인 수빈의 발인반차도와 신주를 경우궁에 모시는 반차도가 제작되었다. 후궁 신분으로서 발인 및 신주 봉안 반차도가 유일하게 의궤에 수록되었을 정도로 순조의 조치는 파격적이었다.

조모와 사친의 흥례에서 보인 순조의 조치는 아들 효명세자(1809-1830)의 상에서도 나타났다. 효명세자의 발인반차도에서는 길의장에 왕의 법가의장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도 1 법가의장, 『효명세자에장도감의궤』〈반차도〉 7-9면, 1830, 규장각.

<sup>12</sup> 『순조실록』 권25, 1822년(순조 22) 12월 26일(丙寅).

<sup>13</sup> 『순조실록』 권26, 1823년(순조 23) 1월 9일(己卯).

<sup>14</sup> 『순조실록』 권27, 1825년(순조 25) 2월 13일(辛未).

<sup>15</sup> 정경희, 「1822년(순조 22) 綏嬪 朴氏의 죽음과 徽慶園園所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1(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 pp. 472-473.

왕세자의 발인 행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도 1). 이는 대리청정하는 왕세자의 의장을 왕보다 한 등급씩 차등적으로 낮추도록 한 규정을 발인 행렬에 적용한 것이다.<sup>16</sup> 또한 별묘인 文祐廟를 영건하고 신주를 모시는 반차도를 제작케 하였다. 이는 정조가 文孝世子(1782-1786)의 私廟를 영건하면서 반차도를 제작한 예를 따른 것이지만 입묘 의례를 주관하는 도감을 따로 둬으로써 의례의 위상을 더 높인 점이 18세기와는 달랐다.

혜빈과 수빈, 효명세자의 흥례 반차도와 분아반차도 제작은, 해당 의례의 격을 높이고 예모를 갖추고자 한 순조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순조는 세도가문이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서도 ‘선왕의 뜻을 계승’하고 ‘정리를 편다’는 명분 아래 왕실 흥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 2. 가례의 군사 행렬 증대와 시각화

가례 반차도로는 순조와 효명세자의 가례와 현종의 세 번의 가례 반차도가 있다(표 1 참조). 이 시기 가례에서는 1759년 영조와 정순왕후 가례의 예를 따라 왕이 왕비를 친영해 오는 거동 행렬이 왕비의 詣闕 행렬과 함께 반차도로 제작되었다. 왕세자의 가례에서도 왕의 예를 따라 친영 행렬이 반차도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1847년 慶嬪 金氏를 후궁으로 맞이하는 『경빈가례등록』에 반차도가 수록된 것은 전대와 다른 새로운 면모이다. 경빈 가례에서는 삼간택에서 뽑힌 신부가 별궁으로 나아가는 〈詣別宮班次圖〉와, 동퇴연을 위해 별궁에서 대궐로 나아가는 〈詣闕班次圖〉가 제작되었다. 후궁 가례에서 반차도가 제작된 예는 정조가 1780년 和嬪 尹氏를 맞이할 때에도 있었으나 등록에 수록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sup>17</sup> 이는 당시 왕실에서 후궁 가례에 부여한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가례 반차도의 면수는 19세기 들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후기로 갈수록 더 심화된다. 이에 대해 왕실 의례의 규모가 커진 결과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인 파악이 아니다. 반차도 면수의 증대는 실제 행렬 규모가 커진 것인지, 아니면 동일 행렬에 대한 시각화의 상세화 결과인지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가례 반차도의 면수 증대는 국왕의 친영 행렬에 동원된 시위군사의 증대와 관련이 있다. 1802년 대왕대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하에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가 거행되었다. 순조의 친영시 선·후

<sup>16</sup> 『순조실록』 권28, 1827년(순조 27) 2월 18일(甲子); 제송희, 앞의 논문(2013), p. 151.

<sup>17</sup> 『승정원일기』 1460책, 1780년(정조 4) 3월 2일(辛巳).

상 시위군 편성은 己卯年(1759년) 영조 가례의 예를 따르라는 명이 있었으나 1759년 당시에는 선·후상 시위군이 관행대로 편성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sup>18</sup> 즉 절용을 강조한 영조의 특명에 따라 왕과 왕후의 행렬에 각각 편성하던 시위군과 동·서반 관원을 하나의 행렬로 편성하였던 것이다. 군사의 숫자도 친영 習儀 時에 편성된 400명이 당일에도 같이 동원되었다.<sup>19</sup> 하지만 의궤 반차도에서는 각각의 행렬이 편성된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 실제와 달리 시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조의 친영 행렬은 영조 가례의 예를 따르지 않고 ‘列朝의 옛 예(列朝舊例)’대로 편성되었다.<sup>20</sup> 친영 전날 병조에서 마련한 시위절목은 훈련도감의 등록에서 확인된다. 훈련도감에서는 협련 포살수 100명, 왜창수 100명과 함께 보군 전원이 전·후상군에 동원되었다.<sup>21</sup> 실제 군병의 숫자는 馬兵 6哨 805명, 步軍 26초 2830명, 標下軍 1384명 등 총 5000명이었다.<sup>22</sup> 이는 1759년 영조 친영 시 배치된 선·후상군 400명보다 10배가 넘는 숫자였는데 이후의 가례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다.<sup>23</sup> 즉 순조의 친영 행렬 편성에는 절용보다는 성대함을 택한 당시 왕실 상황이 드러나 있었다. 그중 국왕의 권위와 왕실의 勢를 보이려던 정순왕후 및 대신들의 의사와 당시 훈련도감 대장으로 兵權을 장악하고 있던 순조 장인 金祖淳의 뜻이 주요 변수였을 것이다.

이렇듯 대규모로 편성된 군사 행렬은 반차도에서 시위부대 면수의 증대를 가져왔다. 규장각에 분상된 어람용 의궤의 순조 친영반차도는 67면으로, 영조의 친영반차도 50면보

18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上(奎13122-1), pp. 142-143. “壬戌 十月初八日 進講入侍時 行禮書判書李晚秀 所啓 親迎舉動時 兵曹先後廂磨鍊 草記批旨有依己卯(1759년)例磨鍊之命矣 各年前例 大駕中宮殿先後廂及陪從東西班 各爲磨鍊 己卯年以道路便近 特命同牌舉行 而節目則勿爲付標事下教 己卯儀軌班次圖 亦以分班載錄 其間聖教實出於一時便宜 今番先後廂及陪從官 一依列朝舊例磨鍊 似合事體 諸大臣之意亦同 兵判則未及登筵 日適入侍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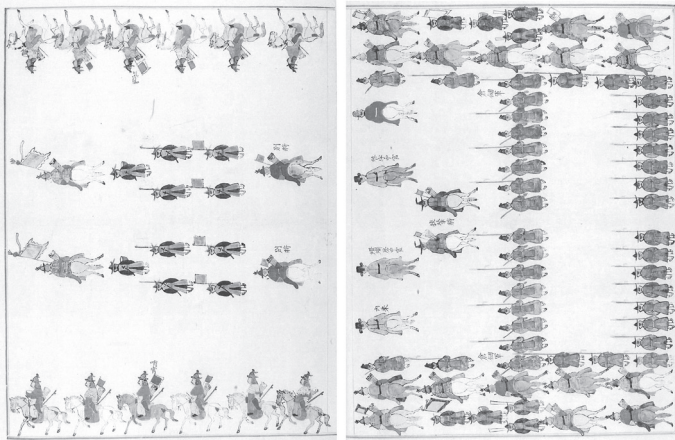
19 박소동 역, 『국역 가례도감의궤』(민족문화추진회, 1997), p. 54.

20 주 18) 참조.

21 『訓局瞻錄』49(K2-3400\_053), pp. 173-174. “(壬戌 十月十五日) 兵曹爲相考事 今十月十六日 親迎教是時 挾輦砲殺手一百名 倭槍手一百名 訓局軍兵中抄擇 將官率領 分左右侍衛 而駕後尾局 相連列立作門 依班次舉行爲白乎矣 作門出入許入不許入 依定式舉行 其外雜人一切嚴禁爲旸 作門砲殺手三十名 除出別宮大門外排立 雜人一切嚴禁爲旸 前後廂各三衛 訓局步軍全數 大將率領 前後半分屬爲白乎矣”

22 『訓局瞻錄』49(K2-3400\_053), pp. 174-175. “今十月十六日 親迎教是時 因兵曹節目 馬兵六哨八百五名 步軍二十六哨二千八百三十名 標下軍一千三百八十四名 大將臣金(祖淳)率領隨駕爲白臥乎事 傳曰 訓將有難領軍 御將代領 訓局軍爲先廂 禁將當爲隨駕”

23 제송희, 앞의 논문(2013), pp. 163-164.



도 2 선상군의 훈련도감 마병(왼쪽)과 국왕 연 뒤의 협련군·창검군, 『순조 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어람용) 〈반차도〉 5, 30면, 1802, 국립중앙박물관.

다 17면이나 늘어나 있다.<sup>24</sup> 두 반차도를 비교해 보면, 선·후상 군사와 국왕 연 주변의 시위군을 중심으로 행렬이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 순조 친영반차도에서는 선상군 선두의 훈련도감 마병과 국왕 연 뒤의 협련군과 창검군이 새로이 시각화되어 있다(도 2). 이러한 시위군 묘사는 국왕과 왕세

자 친영반차도의 규례가 되어 19세기 가례 반차도의 면수를 전반적으로 증대시켰다. 1819년 효명세자의 친영반차도 면수(52면)는 18세기 왕세자 가례 시 반차도 면수보다 3배 가량 늘어나 있고 그중 시위군이 20면이었다. 1844년 헌종 가례 시 친영반차도에서도 전체 행렬 80면 중 왕의 행렬이 55면, 그중 선·후상 시위군이 22.5면으로 전체 행렬의 41%를 차지하였던 것이다.<sup>25</sup>

친영반차도에서 시각화된 시위군 편제는 발인 행렬에도 영향을 주었다. 1830년 효명세자 예장, 1834년 순조의 국장 시 발인반차도는 각각 50면, 64면이었다. 효명세자의 발인반차도 면수는 동시기 효의왕후의 발인반차도 면수(40면)보다 많으며, 순조의 경우 1800년 정조의 발인반차도 면수(40면)보다 1/3 이상이 늘어나 있다. 왕의 발인 행렬에는 선·후상군 800명, 왕세자의 발인 행렬에는 前·後牌軍 400명으로 시위군사의 수는 18세기와 변동이 없었다.<sup>26</sup> 더욱이 효의왕후의 발인 행렬에 동원된 시위군 수는 효명세자의 발인 행렬

<sup>24</sup> 분상용 의궤 반차도는 52면으로 되어 있어 어람용 의궤 반차도와 면수 차이를 보인다. 외규장각의 어람용 의궤가 공개되기 전, 분상용 의궤만 참조한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는 어람용 의궤 반차도의 면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제송희, 앞의 논문(2013), pp. 161-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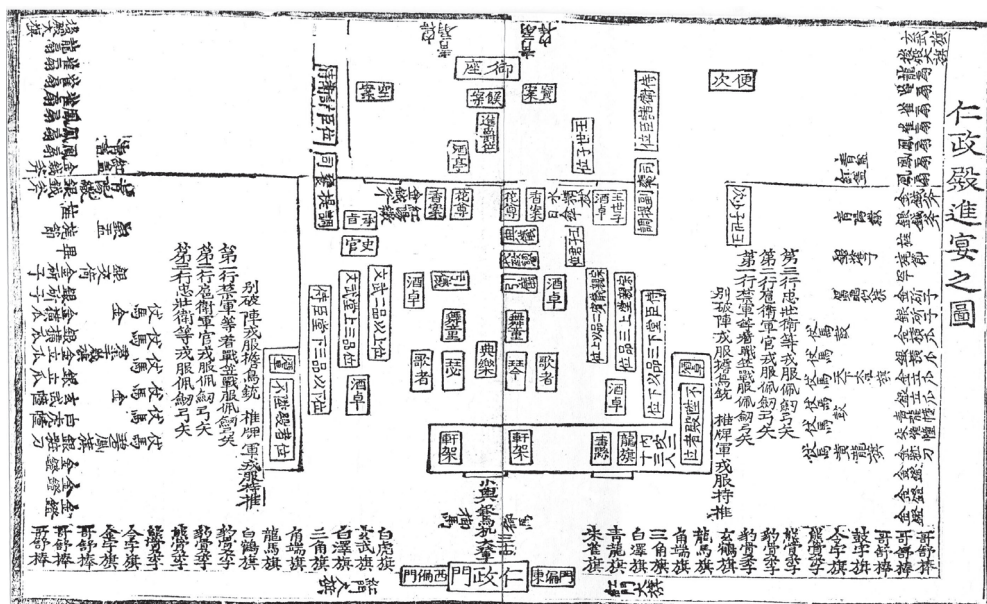
<sup>25</sup> 『憲宗孝定王后嘉禮都監儀軌』 上(奎13143-1), pp. 545-559, 517-510 참조.

<sup>26</sup> 『純祖國葬都監儀軌』 1(奎13669-1), p. 188. “先後廂 訓練都監軍兵中八百名除出 將官率領 前後半分分屬爲白乎矣”; 『孝明世子禮葬都監儀軌』 1(奎13718-1), pp. 131-132. “前後牌軍兵四百名 訓練都監軍兵中除出 將官率領 前後半分分屬爲白乎矣”

에 동원된 시위군 수와 같은 400명이었다.<sup>27</sup> 이렇듯 왕과 왕세자의 발인반차도를 중심으로 면수가 늘어난 것은 반차도 제작 시 평상시 행차 형식을 준용하여 1802년 순조 가례와 1819년 효명세자 가례 시 친영반차도의 시위군 묘사 방식을 참조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수의 시위군이 동원되었음에도 효의왕후의 발인반차도가 10면이 적은 원인은 시위군 묘사 방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가례의 친영반차도 면수가 늘어난 것은 시위군의 실제 행렬 중대가 원인이었고 발인반차도가 늘어난 것은 시위군 시각화의 관행이 반영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연향 의궤의 文班次圖 수록

이 시기 왕실의 연향 관련 의궤에 반차도가 수록된 것은 前代와는 다른 양상이다. 연향 시에도 習儀 전에 반차도를 제작하였으나 의궤 수록 관행은 없었다.<sup>28</sup> 연향이 殿庭이라



도 3 <인정전 진연도>, 『국조속오례의서례』, 1744.

<sup>27</sup>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1(奎13649-1), p. 177. “前後射隊軍兵四百名 訓練都監軍兵中抄擇 將官率領 前後半分屬爲白乎矣”

<sup>28</sup> 『受爵儀軌二』(奎14361-2), pp. 86-88. “今此受爵教是時班次圖 大殿一件 世孫宮一件 所入·明日習儀及良入啓는 如乎”

표 2 연향 의궤의 文班次圖 목록

	의궤 명칭	연도	종수	문반차도 내용
1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순조27)	6	1. 慈慶殿圖 2. 殿內圖 3. 東補階圖 4. 西補階圖 5. 外補階登歌圖 6. 外補階軒架圖
2	戊子進爵儀軌	1828(순조28)	4	1. 慈慶殿進爵班次圖 2. 慈慶殿夜進別盤果班次圖 3. 慈慶殿翌日會酌班次圖 附編: 4. 演慶堂進爵班次圖
3	己丑進饌儀軌	1829(순조29)	6	1. 明政殿進饌班次圖 2. 慈慶殿進饌班次圖 3. 慈慶殿夜進饌班次圖 4. 慈慶殿翌日會酌班次圖 附編: 5. 慈慶殿進饌班次圖 6. 慈慶殿夜進饌班次圖
4	戊申進饌儀軌	1848(헌종14)	4	1. 通明殿進饌班次圖 2. 通明殿夜進饌班次圖 3. 通明殿翌日會酌班次圖 4. 通明殿翌日夜議班次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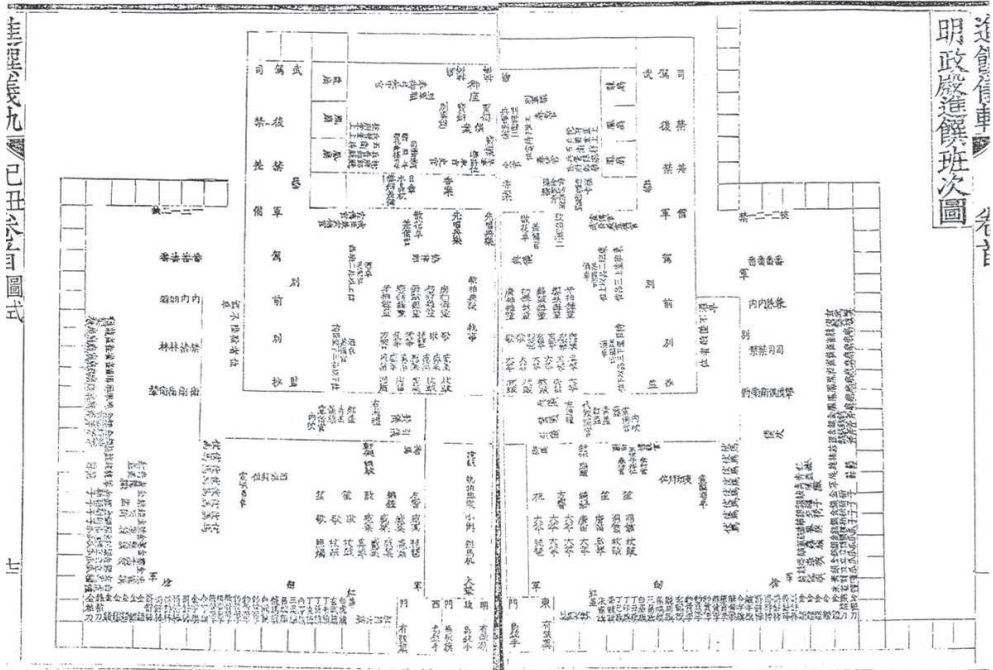
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국조속오례의』에 수록된 〈인정전 진연도〉 정도의 지침으로도 연향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도 3). 하지만 19세기 들어 이러한 관행에 변화가 생겼다. 19세기 전반 연향 의궤는 모두 5건이 있었는데 1809년의 『惠慶宮進饌所儀軌』를 제외한 4종의 의궤에 연향이 열리는 공간의 반차를 글자로 시각화한 文班次圖가 수록되어 있다(표 2 참조). 의궤에는 문반차도 외에 건축도, 전각 안의 연향 장면을 회화로 묘사한 행사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의궤에 연향 공간의 건물도와 회화식 행사도를 수록한 것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화성행궁도〉와 〈봉수당진찬도〉의 예를 따른 것이나 문반차도가 새로 추가된 점이 다르다.

1827년 순조의 왕권 강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대리청정을 시작한 효명세자는, 7월에 원손[헌종] 탄생을 기념하여 순조와 순원왕후에게 존호와 進爵을 올렸다. 진작은 9월 10일 창경궁 자경전에서 거행되었는데 “조그만 술자리를 베풀어 경사를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진작이란 용어가 새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진작은 규모 면에서 18세기의 진찬보다 훨씬 성대하였다.<sup>29</sup>

1827년의 진작 과정을 기록한 『자경전진작정례의궤』에는 6종의 문반차도가 수록되어 있다(표 2). 〈慈慶殿圖〉는 진작이 거행된 자경전 전체 공간을 글자로 圖示한 평면도이다(도 4). 이를 통해 대청과 온돌방에 순조와 순원왕후,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자리인 殿內 공간을 마련하고, 대청 앞에 동서 보계, 중간 및 아래층 보계를 가설하여 공간을 배치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어 〈殿內圖〉 〈東補階圖〉 〈西補階圖〉 〈外補階登歌圖〉 〈外補階軒架

<sup>29</sup> 김중수, 「규장각 소장 연향 관련 의궤 고찰」,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pp. 12-17.





도 6 <명정전진찬반차도>, 『기축진찬의궤』, 1829, 규장각.

<명정전진찬반차도>는 <인정전 진연도>에 비해, 殿內 공간과 시위군사, 朶才와 등가·헌가 관련 사항이 훨씬 구체적으로 시각화되어 있다. 전내의 경우 御座·寶案·饌案·空案·進爵位 등 기물 중심으로 도시된 <인정전 진연도>와는 달리 승지·사관 등 近臣과 국왕 시위를 담당하던 將官들이 어좌 좌우 전내 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壇上과 壇下 좌우에는 무예별감과 가전·가후 금군 및 협련군 등 시위군사들이 도열해 있다. 또한 정재 무동, 등가와 헌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도시된 것도 다른 점이다. 정재는 『원행음묘정리의궤』에서도 시각화되어 있지만 등가와 헌가 관련 시각자료는 순조 대부터 확인된다. 1809년 『己巳進表裏進饌儀軌』(영국 대영도서관 소장)에 <登歌圖> <軒架圖> <樂器圖>가 등장하고, 순조가 '장악원에서 매월 26일 음악을 익히다[梨園二六習樂]'를 화원들의 녹취재 화제로 내리는 등 음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sup>33</sup> 그러므로 이 시기 진작·진찬 의궤에서 음악 및 악기 관련 내용이 시각화된 것은 『기사진표리진찬의궤』의 예를 참조하여 당대의 음악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명정전진찬반차도>와 같은 문반차도에서도 이 시기 중시된 국왕 시위 관련 사항과 정재 및 음악 관련 사항이 도시되게 된 것으로

<sup>33</sup>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상(돌베개, 2001), pp. 300-301.

사료된다.

새 지침의 필요성은 연향 준비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정재의 무용수와 내전 의장수는 모두 외방에서 차출한 관기나 여자종[婢子]들이 맡았는데, 1801년 공노비 혁파로 인해 인력 동원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sup>34</sup> 그리하여 3도 습의 즈음까지 각 관아와 관련된 공문들이 오고갔을 정도로 인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급하게 동원된 인력들로 행사를 준비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보통 內外에서 3회씩 진행하던 習儀 중 여성들이 하던 內習儀가 다섯 번 내지 일곱 번씩 거듭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이 많이 필요했던 정황을 반증해 준다.<sup>35</sup> 전내도, 동서 보계도 등으로 세분된 문반차도들은 각 공간별로 기물과 의장, 악대와 정재, 차비인원 등이 명시되어 있어 행사 준비 관원들에게 공간별 안내도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시위·의장·악대·정재 등의 통솔을 맡은 牌頭들에게도 반차를 숙지시키는 지침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6</sup> 그러므로 19세기 연향 관련 문반차도는 규모와 격이 달라진 19세기 국가적 연향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자료이며, 의궤에 수록됨으로써 이후 연향의 규례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Ⅲ. 의궤 반차도 화풍의 신경향

반차도는 ‘행렬의 일목요연한 표현’이란 기능성과 여러 벌 복제라는 특성상 일찍부터 印刻彩色 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화원 개인의 역량이나 회화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다. 그리하여 반차도의 화풍은 일반 회화의 화풍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sup>37</sup> 또한 필사한 어람용 의궤의 반차도와 『원행을묘정리의궤』〈반차도〉와 같이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도식적인 화풍이 보수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前代의 예를 좇아 제작하는 반차도의 尙古性으로 인해 더욱 고착되었다. 그럼에도 반차도의 화풍은 인각의 사용 정도, 인각으로 표현된 인물 조형의 특징, 중앙 열 가마의 묘사방식

<sup>34</sup> 『慈慶殿進爵整禮儀軌』下(奎14535-2), pp. 21-26; 『己丑進饌儀軌卷之一』(奎14370-2), pp. 143-144.

<sup>35</sup> 1829년 진찬시에는 外進饌 習儀가 진찬소와 명정전에서 3회, 內進饌 습의가 진찬소 3회, 자경전 內習儀 5회 진행되었고, 1848년 진찬시에는 통명전에서 7회 진행되었다. 『己丑進饌儀軌總目』(奎14370-1), pp. 11-12; 『戊申進饌儀軌總目』(奎14372-1), pp.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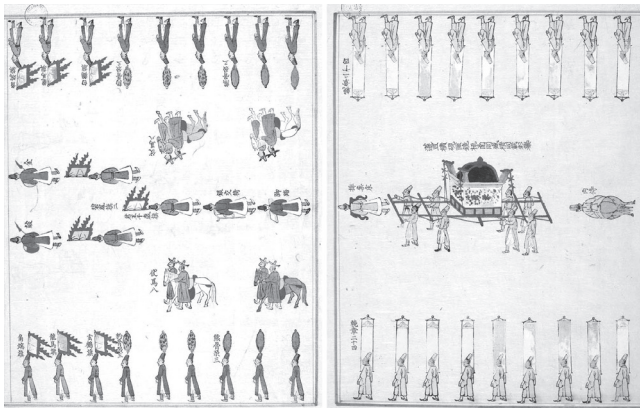
<sup>36</sup> 이러한 사실은 당시 정조의 호위 무관으로 활약한 盧尙樞(1746-1829)의 일기에서 확인된다. 『盧尙樞日記』2, “正宗十七年 癸丑(1793)日記 九月…十一日辛丑…是日招致都牌頭金鼎三 作左右列班次圖 正書以給 使揭內吹都家壁上 照此舉行定式”

<sup>37</sup> 이성미, 「외규장각 의궤의 문화사적 의의」,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국립중앙박물관, 2011), p. 257.

및 공간감의 구현 여부 등에 따라 시대적 경향성을 보였다.<sup>38</sup> 19세기 전반의 의궤 반차도는 1830년 무렵부터 새로운 경향을 보인다. 이 새 경향을 인각기법의 발전, 인물 조형의 변화, 계화기법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변화의 원인을 화원들의 궁중회화 작업과 연관지어 찾아보고자 한다.

## 1. 印刻技法의 발전

1830년대에는 반차도 제작에 사용하던 인각의 활용 폭이 더욱 넓어졌다. 1835년 『순조국장도감의궤』〈반차도〉에서는 가마를 담지군과 함께 일체형으로 제작한 인각, 의장기 인각, 만장과 만장군을 일체형으로 새긴 인각, 방상씨와 수레 및 2인의 引車軍을 일체형으로 새긴 인각, 죽안(산)마와 수레 및 2인의 인거군을 일체형으로 새긴 인각 등 일체형 인각이 다양하게 등장한다(도 7). 가마와 담지군의 일체형 인각은 18세기 전반부터 일부 제작된 바 있으나 각종 깃발 인각, 만장과 만장군, 방상씨 수레와 인거군, 죽안(산)마 수레와 인거군 등의 일체형 인각은 순조 국장시에 처음 등장하였다.<sup>39</sup> 가마류의 일체형 인각은 『순조국장도감의궤』〈어람용〉〈반차도〉 35면에서 보듯이 팔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 약간씩 다른 동작을 취하는 인물들을 함께 새기기 때문에 하나의 인각으로 모든 담지군을 표현할 때에 비해 도식적인 분위기를 벗어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도 7 『순조국장도감의궤』〈어람용〉〈반차도〉 14, 35면, 1835, 국립중앙박물관.

나아가, 1836년 『종묘영녕전중수도감의궤』〈반차도〉에 등장하는 일체형 신련 인각은 이후 연과 신련 인각의 조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반차도의 신련은 가로 19, 세로 9.6cm 정도의 넓은 목판에 신련과 담지군을 같이 새겼는데, 평행사선구도로

<sup>38</sup> 현존 의궤 반차도는 이들 표현방식에 따라 17·18세기 선조-경종 연간, 18세기 영·정조 연간, 19세기 순조-고종 연간의 화풍으로 대별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송희, 앞의 논문(2013) 참조.

<sup>39</sup> 19세기 이전 가마와 담지군의 일체형 인각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pp. 61, 94-9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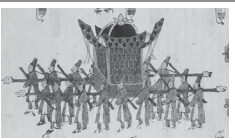
도 8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 <반차도>의 神輦, 1836, 장서각.

배치한 가로세로 가마채가 정확하게 계화로 작도되어 있고, 24명의 담지군을 5명씩 앞쪽에 2줄, 뒤쪽에 2줄, 연 좌우에 2명씩 배치하였다(도 8). 각 줄의 담지군도 가마채 바깥에 2명씩, 중앙에 한 명을 엇비슷하게 포치하여 서로 얼굴이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담지군들은 제각기 팔을 들어 올린 모습으로 현장감 있게 묘사되어 있으며, 실제로 동원된 24명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사실적 묘사에 충실하였음을 보여준다.<sup>40</sup> 이렇듯 신련 자체가 사실적이고도 정확하게 묘사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 신련 조형은 동시기 『순조의 중부묘도감의궤』 <반차도>, 『헌종효현왕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태

조영정모사도감의궤』 <반차도> 등의 연 표현에 이용되었고, 1840년대 이후에는 열당 담지군의 숫자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모습으로 계승되었다(표 3 참조). 이 일체형 신련 인각은 이후 연을 표현할 때 조형 역할을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인각이 마모되거나 담지군의 숫자를 줄여 간략히 하고자 할 때 기존 반차도의 이미지를 본으로 썼기 때문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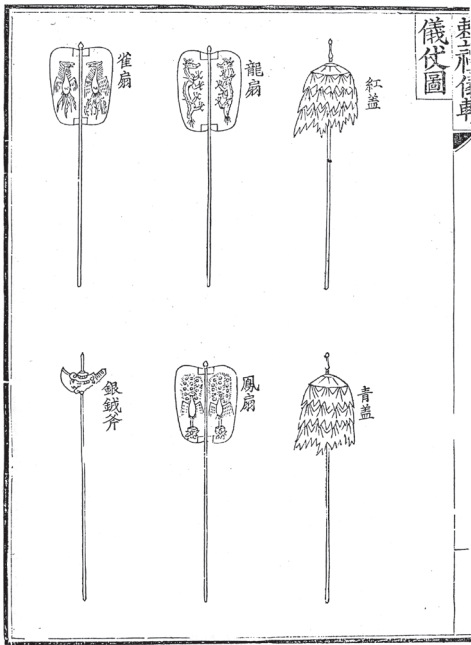
표 3 19세기 전반 의궤 반차도의 일체형 神輦(輦)

			
순조 신련(『純祖翼宗祔廟都監儀軌』, 1837)	왕비 연(『憲宗孝顯王后嘉禮都監儀軌』, 1837)	신련(『太祖影幀摸寫都監儀軌』, 1838)	신련(『憲宗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1843)

40 『宗廟永寧殿增修都監儀軌』 下(奎14226-2), p. 91. “(乙未十一月二十九日) 同日 神輦以下 各樣擔陪軍及奉持軍 參酌磨鍊 後錄以稟爲去乎 依此等待事 捧甘何如 題辭內 依 後 神輦八坐 擔陪軍一百九十二名 雨備軍十六名 雨傘軍十六名 神輦四坐 擔陪軍四十名 雨備軍四名 馬木軍八名”

슷한 조형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각기법의 발전은 이 시기 연향 의궤의 목판 인쇄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827년의 『자경전진작정례의궤』는 『원행음묘정리의궤』의 예를 따라 활자본으로 인쇄되었다. 당시의 上號와 진작을 ‘曠前의 盛事’로서 추진한 효명세자가 기록도 『원행음묘정리의궤』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남기고자 한 것이다.<sup>41</sup> 그런 만큼 의궤 도식 기화에 차비대령화원 朴禧瑞를 비롯하여 安英祥, 朴禧英 등 우수한 화원들이 동원되었다.<sup>42</sup> 보통 필사하는 의궤 편찬에 2-3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起畫·繕寫·板刻 후 인출을 거쳐야 하는 이 편찬작업에는 7개월이 소요되었을 정도로 많은 물력과 인력이 투입되었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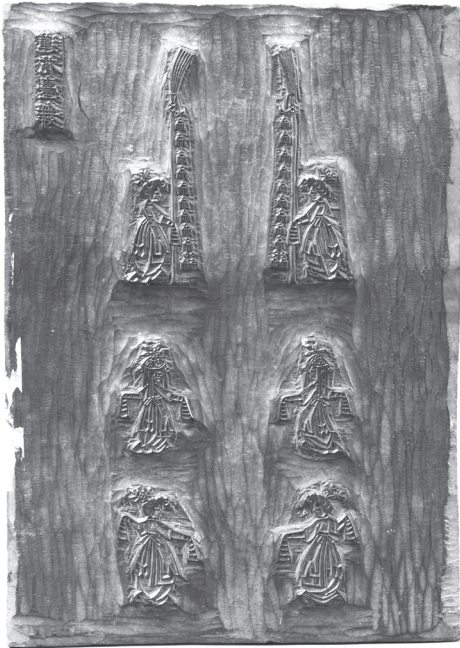
도 9 <儀仗圖>,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827, 규장각.

『자경전진작정례의궤』에는 문반 차도와 회화식 행사도 외에 <綵花圖> <器用圖> <의장도> <악기도> <복식도> 등 다양한 도설이 판각되어 있다 (도 9). 그중 51건의 의장기와 의장물을 묘사한 <의장도>는 <악기도>와 함께 『원행음묘정리의궤』에는 없던 것이었다. 또한 각종 회화식 행사도에는 의장기를 든 인물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의장기의 판각 작업과 일체화된 인물 인각 경험은 의궤 반차도에서의 일체형 인각 기화를 촉구하는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의궤의 판각 작업은 1828년의 진작과 1929년의 진찬 후 의궤를 편찬할 때에도 이루

41 『慈慶殿進爵整禮儀軌』 上(奎14535-1), p. 75. “令曰 今觀習儀 一日二禮 必有維日不足之慮 曠前盛事 不宜草草了行 進爵之禮 退定於翌日 再三度習儀 則再度則同日兼行 兩禮習儀三度 則上號習儀元定日爲之 進爵習儀 初五日 各行事分付 主管所及都監”

42 오수창, 『『자경전진작정례의궤』 해제』, 『慈慶殿進爵整禮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6); 『[翼宗]代應時日錄』(奎12842) 22책, p. 029a. 박희서는 1823년부터, 박희영은 1831년부터 차비대령화원으로 활동하였다(강관식, 앞의 책, p. 61).

43 『慈慶殿進爵整禮儀軌』 上(奎14535-1), pp. 87-88. 1848년 『무신진찬의궤』의 경우 의궤 도식 기화에 약 10개월, 새김에서 인출까지 3개월, 총 13개월이 소요되었다. 박은순, 앞의 논문(2005), pp. 277-280.



도 10 〈蓮花臺舞〉, 木板, 21,2×15,1×1,5cm, 국립고궁박물관(<http://www.gogung.go.kr>).

어졌고 이어지는 19세기 연향 의궤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다.<sup>44</sup>

그러므로 1827년부터 계속된 연향 의궤 도식의 기화와 판각작업은 화원들의 의궤 편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蓮花臺舞〉〈鶴舞〉 등의 목판은 19세기 후반 연향 의궤 제작시에 사용한 인각의 예이다(도 10).<sup>45</sup> 이 유물들은 큰 목판에 6명의 女妓가 춤추는 모습과 학무 장면 등이 새겨져 있는데 版心이 없어 판에 얹혀지지 않은 상태의 인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큰 목판에 사람과 器物을 같이 새기는 작업은 의궤 반차도 제작시 인각의 활용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보았듯 이들 연향 의궤 3건이 판각된 이후인 1835년 『순조국장도감의궤』〈반차도〉에서부터

다양한 일체형 인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 2. 인물 조형의 변화

19세기 반차도는 내외 규장각 분상용(어람용)과 사고 분상용의 구분 없이 대부분 인각채색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인물 조형 역시 인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의궤 반차도에서 이렇듯 인각채색법이 일반화한 데에는 정조의 어람용 의궤 폐지와 관련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sup>46</sup> 장황·종이·서체·안료 등을 분상용과 구분하여 왕의 열람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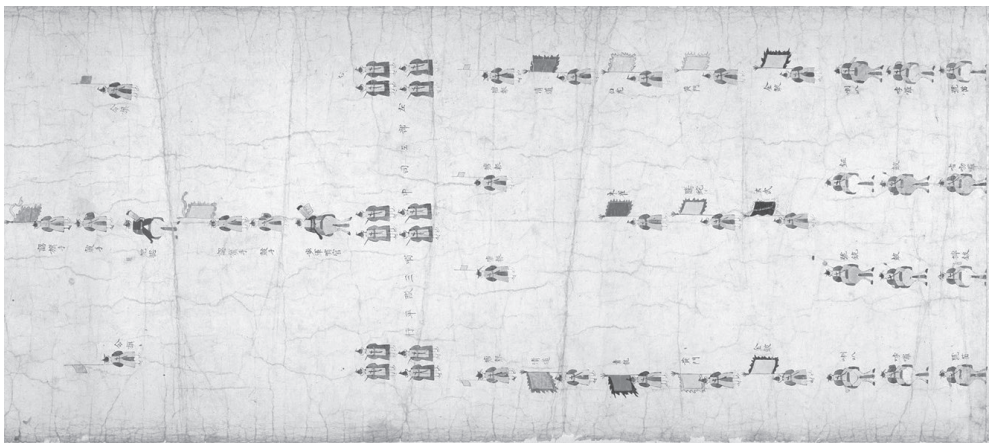
<sup>44</sup> 각 의궤 후 의궤의 판각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인출은 1848년 『戊申進饌儀軌』 간인 때 함께 이루어졌다. 박은순, 앞의 논문(2005), p. 269.

<sup>45</sup> 국립고궁박물관 외 몇몇 기관에 19세기 후반 연향 관련 의궤의 인각 및 목판이 소장되어 있다. 김정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의궤 도식 목판」, 『고궁문화』 2(2008), pp. 115-142.

<sup>46</sup> 신병주, 「조선시대 儀軌 편찬의 역사」, 『조선시대사학보』 54(2010), pp. 287-288; 『일성록』 1776년 7월 29일.

특별히 제작되던 어람용 의궤에서는 반차도도 필사하여 제작되었다.<sup>47</sup> 그리하여 어람용 의궤 반차도에서는 인물 묘사와 채색, 가마의 정교한 문양 및 행렬 구성 방식 등에서 화원들의 묘사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48</sup> 정조가 1776년 7월 영조 국장 관련 의궤 편찬 시 어람용 의궤 폐지 전교를 ‘호조에 명한 것은 물력 낭비적 측면을 경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전교는 의궤 반차도의 제작에도 영향을 주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필사 방식이 인각채색법으로 대체되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1789년의 『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반차도〉에서는 어람용으로 제작된 규장각 분상용 반차도에서 보듯이 인각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sup>49</sup>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들어 본격화하여 대부분의 의궤 반차도가 인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의궤 반차도의 인물 인각 조형은 1830년 이전에는 영·정조대의 조형을 따르는 경향이 강했다.<sup>50</sup> 1802년 순조의 가례 시에 대폭 늘어난 선·후상 시위군 표현은 1795년 〈화성 원행반차도〉(규장각 소장)의 시위군 표현을 참조하여 전방을 향해 엮어진 후면상으로 묘사되었다(도 2와 도 11 비교). 또한 가례에 동원되던 관원의 조복과 군관의 용복 자락이 각지게 꺾인 모습, 사령의 과도하게 넓은 소맷자락 등은 1759년 영조 친영반차도의 조형과 유사하다. 반차도 제작시 前代의 반차도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시위군은 近例인 화성 원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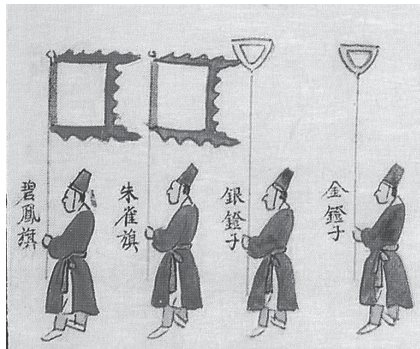
도 11 〈화성원행반차도〉 부분, 1795, 전체 36.6×1536cm, 지본에 인각채색, 규장각.

47 유세롬, 「외규장각 의궤의 현황과 특징」, 『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국립중앙박물관, 2012), pp. 159-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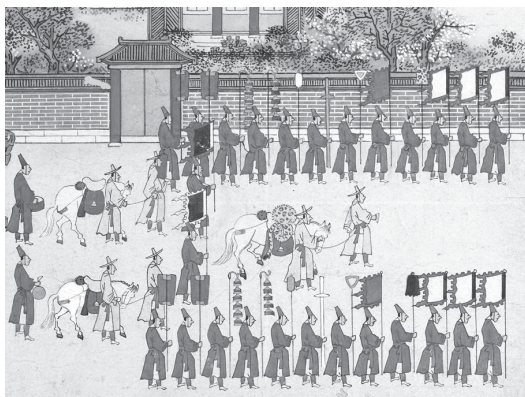
48 제송희, 앞의 논문(2013), pp. 99-100.

49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http://uigwe.museum.go.kr/banchado/banchaKind>)’ 중 ‘천릉(遷陵)·천봉(遷峰)·천원(遷園)’ 반차도 참조.

50 제송희, 위의 논문(2013), p. 200.



도 12 의장수, 『헌종왕세손책저도감의궤』 <반차도> 2면 부분, 1830, 장서각.



도 13 <出宮儀> 중 의장 부분, <<王世子入學圖>>(帖), 1817, 전체 33.8×45.2cm, 국립문화재연구소.

의 예를, 관원들은 영조 친영반차도의 예를 참조하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이렇듯 前代 반차도의 조형을 참조하는 경향이 1830년 정도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인물 인각 조형은 1830년 헌종 책례에서 시작하여 순조 국장을 거치면서 변화를 보인다. 『헌종왕세손책저도감의궤』 <반차도>에서는 두 손으로 의장물을 맞잡고 걷는 잘록한 허리의 의장수와 왕세손 연을 멘 담지군의 움직임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도 12). 이 인물 조형은 1817년 작 <<왕세자입학도>>의 인물들과 유사하다(도 13).<sup>51</sup> 책례 반차도는 왕세자의 冊·印, 의장기, 연여 등 儀物을 도감에서 제작하여 대궐로 내입하는 12면의 짧은 행렬이었으므로 이 반차도에서는 인각으로 새기지 않고 필사하였다. 하지만 잘록한 허리선과 두 가닥으로 늘어뜨린 허리띠 매듭, A라인으로 퍼진 옷자락은 짧은 신체를 박스처럼 통형으로 묘사하던 前代의 조형감과과는 다른 세련미를 준다. 이렇듯 변화된 인물 조형감이 이후 인각으로 유형화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인각으로 유형화되는 것은 1835년 『순조국장도감의궤』 <반차도>에 서이다. 국왕의 발인 행렬에는 관원·군관·시위군·의장수·배종 인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반차도 면수 또한 대폭 늘었으므로 유형화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1800년의 『정조국장도감의궤』 <반차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반차도에는 후면 보행상 및 기마상 각 4종, 측면 보행상 7종 등 다수의 상이 새로 추가되어 있다.<sup>52</sup> 이들은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른 복장을 하고 動勢가 가미되어 있다. 인물의 크기도 약간씩 커지고, 측면상의 옆얼굴

<sup>51</sup>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조 행사기록화』(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 62.

<sup>52</sup> 제송희, 앞의 논문(2013), p. 159의 <표 17> 참조.

윤곽선과 이목구비가 분명하게 표현되는 등 전대에 비해 한층 사실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풍성한 옷자락과 세부 주름이 묘사된 복장, 자연스러운 동작 묘사 등 전반적인 인체 묘사력 향상을 보여준다.

인물 인각 조형의 변화는 19세기 전반 궁중회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왕세자 의례 관련 각종 시각자료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궁중 연향도와 진하도 병풍의 전형이 형성된 시기이다.<sup>53</sup> 그중 연향도와 진하도 병풍은 궁궐 전각을 배경으로 8폭 대형 화면에 연향 장면을 연폭으로 묘사하였는데, 기존의 궁중 행사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었다. 순조 재위 30주년 기념 《기축진찬도》 병풍에 그려진 인원은 명정전진찬 부분에 1310여 명, 자경전진찬 부분에 520여명, 합 1830명 정도이다. 앞서 본 〈明政殿進饌班次圖〉와 같이 시위군사와 정재, 등가·헌가 등을 대폭 정비한 새로운 지침에 입각하여 연향도 병풍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병풍과 의궤 도식은 차비대령화원 이수민 등 13명의 화원이 제작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차비대령화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4</sup>

병풍은 내입 대병 4건, 진찬소 당상과 낭청 등 관원들을 위한 중병 13건이 제작되었다.<sup>55</sup> 현재 확인되는 병풍들은 모두 꼼꼼한 필치로 필사되어 있으며 인물의 개별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sup>56</sup> 또한 『기축진찬의궤』에 수록된 회화식 행사도들은 병풍의 화풍과 비슷하며 수준도 높다. 그러므로 당대 차비대령화원의 주도 아래 연향도 병풍과 의궤의 도식 작업이 이루어졌고 대규모 인원에 대한 반복적이고도 꼼꼼한 필사 과정을 통해 화원들의 인체 묘사력이 높아진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향상된 화원들의 인체 묘사력이 의궤 반차도의 인물 인각 조형을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사료된다.

다른 한편, 19세기 전반 왕실에서 다량 제작된 郭汾陽行樂圖·瑤池宴圖·百童子圖 같은 새로운 화제의 길상적 그림들도 화원들의 인물 묘사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국풍 길상화들이 18세기 후반 사대부 가례에서 널리 유행한 사실이 柳得恭(1749-1807)의 『京都雜誌』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sup>57</sup> 수복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길상 및 기복적 소재의 이 그림들은 조선후기 경제력의 향상, 대중국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계층에게

53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일지사, 2000), pp. 411-417.

54 박정혜,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 9(1995), p. 244.

55 박정혜, 「19세기 궁중연향과 궁중연향도병」, 『조선시대 진연진찬진하병풍』(국립국악원, 2000), p.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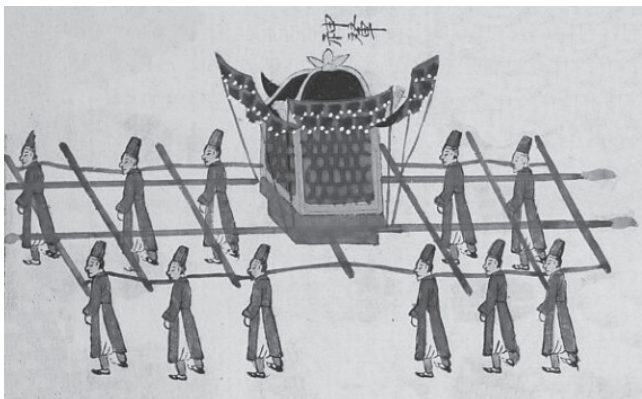
56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I(국립중앙박물관, 2010), 도 5, 도 6, pp. 168-169 참조.

57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 세시기』 Ⅲ(국립민속박물관, 2007), p. 60.

크게 각광받은 소재였다.<sup>58</sup> 영·정조 연간에는 사치풍조에 대한 자제 분위기와 함께 왕실에서는 冊架圖 정도만 수용하였다.<sup>59</sup> 하지만 19세기 들어 여성인 왕대비들이 왕실 가례를 관장하는 가운데 궁중의 장식화로 대거 유입되었다.<sup>60</sup> 이들 중국풍 길상화들은 모두 계화를 활용한 장대한 궁궐 건물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리하여 연향도 및 진하도와 마찬가지로 계화 및 인물화의 묘사 기량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界畫技法의 적극적인 활용

1836년 『종묘영녕전중수도감의궤』의 일체형 신련 인각은 19세기 전반 새로운 경향을 대표하는 인각이다(도 8 참조). 이 신련은 평행사선구도에 서남쪽 위에서 부감한 듯한 시점을 취하고 있는데 부감 각도가 45도 기울기로 되어 있어 안정감과 사실적인 깊이감을 준다. 연 몸체부의 묘사도 같은 방향에서 자연스럽게 투시되어 있다. 輦의 묘사에서 세로 가마채 위에 가로 가마채를 엇갈리는 각도와 가로 가마채 간의 간격 등은 화원들의 계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종묘영녕전중수도감의궤』의 신련과 그보다 한 해 전에 제작된 『순조국장도감의궤』〈반차도〉의 신련과 비교해 보면, 작도 수준의 차이가 현저히 드러



도 14 순조의 神輦, 『순조국장도감의궤』〈반차도〉 29면 부분, 1835, 규장각.

난다(도 14). 순조의 신련에서는 가로 가마채가 65도로 세워져 있어 불안정해 보이고, 가로 가마채 간의 간격도 정확히 계화로 작도되어 있지 않으며, 담지군도 하나의 인각으로 처리되어 도식적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 신련은 사실성과 정확도 면에서

<sup>58</sup> 홍선표, 『조선시대 회화사론』(문예출판사, 1999), pp. 317-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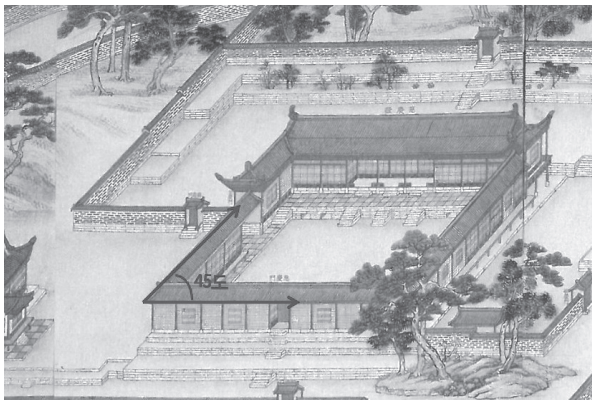
<sup>59</sup> 강관식, 앞의 책, pp. 600-601.

<sup>60</sup> 이성미, 「藏書閣所藏 朝鮮王朝 嘉禮都監儀軌의 美術史的 考察」, 『藏書閣所藏嘉禮都監儀軌』(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87-88; 정영미, 「朝鮮後期 郭汾陽行樂圖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1999); 박정혜, 「제1부 궁중 장식화의 세계」, 박정혜 외, 『조선 궁궐의 그림』(돌베개, 2012), p. 19.

괄목할 발전을 보인다.

그렇다면 한 해 사이에 이렇듯 발전적인 양상을 보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 의뢰가 건축 관련 의뢰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건축과 관련하여 화원들은 건축물의 계획도, 단청, 내부 장엄과 의뢰 내 건물도 등의 畵役에 종사하였는데, 이들 작업은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화원들의 계획 역량은 정조대 차비대령화원의 주도 하에 진행된 華城 城役 작업을 계기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sup>61</sup> 『華城城役儀軌』(1801)에 포함된 건물도들은 대부분 오른쪽 위에서 바라본 시점에서 평행사선구도로 묘사되어 있다.<sup>62</sup> 의뢰에는 240여장의 각종 도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건물 및 행사 관련 그림 64점 중 62점이 평행사선구도로 제작되었다. 그러므로 화성 성역 관련 도화 작업은 전통적인 계획법 중에서도 평행사선구도에 의한 작도를 유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당시 화원들이 제작한 《동궐도》 《경기감영도》 같은 사실적인 건물도에서 입증된다. 19세기 전반 궁중회화를 대표하는 역작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주변 산수와 함께 사실적으로 묘사한 대형 건축그림이다.<sup>63</sup> 기록은 없지만 1928-30년 순조



도 15 자경전 부분, 《동궐도》, 1828-1830, 비단에 채색, 전체 150.2×420.7cm, 고려대학교박물관.

의 장자 효명세자가 대리청정하던 시절 제작한 것이 확실시되며 당대 차비대령화원들의 소작으로 알려져 있다.<sup>64</sup> 화첩 형식의 독특한 장황과 제작 목적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평행사선구도에 의한 장대한 궁궐 그림임은 변함이 없다.<sup>65</sup> 그 외에 <궁궐도>와 경희궁도 제작을 위한 범본으로 추정되는 《서궐도안》 역시 평행사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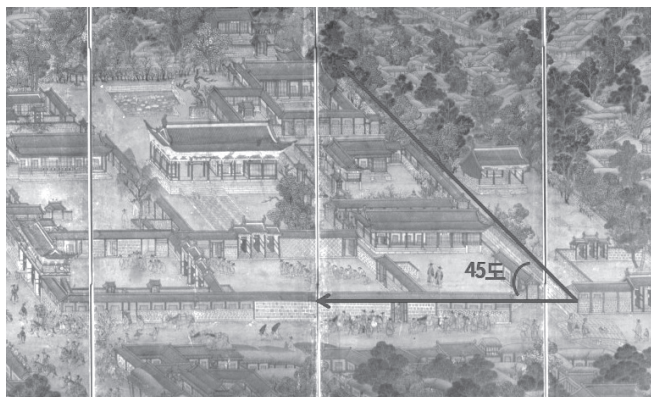
<sup>61</sup> 의뢰의 도설은 정조대 차비대령화원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박정혜, 「『華城城役儀軌』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93(2002), pp. 432-434.

<sup>62</sup> 위의 논문, pp. 426-427.

<sup>63</sup> 안휘준, 「韓國의 宮闕圖」, 『東闕圖』(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1), pp. 21-62; 박정혜, 「19세기 궁궐 계획과 <동궐도>의 건축 표현」, 『동궐』(동아대학교박물관, 2012), pp. 254-271; 장진성, 「<동궐도>의 성격과 회화사적 의의」, 위의 책, pp. 272-285.

<sup>64</sup> 박정혜, 위의 논문(2012), pp. 268-269.

<sup>65</sup> 장진성, 위의 논문, pp. 276-281.



도 16 선화당 부분, 《경기감영도》(12폭), 19세기 전반, 종이에 채색, 전체 135.8×442.2cm, 삼성미술관 리움.

도에 의한 대형 궁궐도 제작 양상을 잘 보여준다.<sup>66</sup>

『종묘영녕전증수도 감의궐』의 일체형 신련의 평행사선구도는 서남 방향으로 45도 기울어진 각도로 부감되어 있다. 이는 동남 방향으로 45도 기울어진 각도로 부감된 《동궐도》 《서궐도안》과는 정반대 방향에서 묘사한

것이다(도 15). 하지만 《경기감영도》와는 같은 서남 방향의 45도 기울기로 묘사되어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도 16). 《경기감영도》도 대형 화폭에 경기 감영과 그 주변 점포와 민가 및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사실적인 건물그림이다. 《경기감영도》에는 현실의 도시공간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모습, 즉 풍속적 요소가 포함된 점이 《동궐도》와는 다르다. 이 그림 역시 19세기 전반 화원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평행사선구도에 45도 기울기로 건축물을 묘사하는 방식은 1830년대 화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묘사법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의궤 반차도의 신련 작도에 당시 건축도 제작에서 유행하던 부감의 각도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거꾸로 《경기감영도》와 《서궐도안》의 제작 연대도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궐』와 비슷하거나 조금 앞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건축 계획작업을 통해 향상된 표현력이 보수적인 반차도 화풍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 전반에 활발하게 진행된 대형 건축 작업 역시 화원들의 계획 역량 향상을 추동한 것으로 보인다. 1805년 인정전 영건을 비롯하여 경우궁, 1832년 서궐 영건, 1834년 창경궁과 창덕궁 영건에 이르기까지 대형 건축공사들이 연속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1835-1836년 종묘와 영녕전을 증수하면서 종묘와 영녕전의 신주를 경희궁으로 移安하였다가 공역이 끝난 후 還安하여야 하였다. 이안 및 환안은 도감 三所에서 마련한 절차와 반차도에 따라 진행되었다.<sup>67</sup> 도감 삼소에서는 반차도 외에 신주를 봉안할 신련과 신어

<sup>66</sup> 조인수, 「서궐도안」, 『한국의 옛 지도』(문화재청, 2008), pp. 390-391.

<sup>67</sup> 『宗廟永寧殿增修都監儀軌』下(奎14226-2), p. 51.

등의 가마도 제작하였다. 당시 삼소에는 순조대 차비대령화원 李仁聘, 李鼎周, 李亨祿과 현종대에 차비대령화원으로 활동하는 徐興源, 李漢喆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68</sup> 이들은 신련 제작시 見樣圖와 반차도의 신련 인각 기화 및 반차도 제작까지 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형록은 책가도 병풍으로 널리 알려진 화원이어서 계화 역량을 추정할 수 있지만 다른 화원의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이들은 능숙한 계화 실력으로 새로운 조형의 신련 인각을 제작하였고 이 신련 인각은 이후 蠶 인각의 범본이 된 것이다.

#### IV. 맺음말

19세기 전반은 왕권 약화와 세도 가문의 정국 주도, 사회적 모순 심화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 반차도는 전체 의궤 반차도의 역사에서 행렬이 가장 장대해지며 조형적인 완성도와 사실성, 세련미 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준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들 특징이 이 시기 왕실의례의 성격 및 궁중회화 상황의 소산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순조가 존왕적 예학 전통을 따라 왕실 흥례를 성대히 거행하는 과정에서 흥례 관련 반차도들이 특별히 제작되었다. 조모인 혜빈 홍씨의 양례, 생모이자 후궁인 수빈 박씨 등 왕실 어른과 효명세자 예장에서 제작된 관원용 분야반차도와 사묘에 이들의 신주를 모시는 반차도들은 순조의 강력한 의지 아래 제작된 것들이다. 다음으로, 18세기와는 달리 가례에서 어린 왕의 친영 행렬에 대규모 시위군이 동원되어 위의를 드러내었고, 반차도에서 시위군 행렬이 시각화됨에 따라 행렬의 길이가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왕실의 연향에서는 국왕 시위와 정재 및 음악 관련 사항을 시대에 맞게 시각화한 새로운 행사 계획도로서 문반차도가 제작되었다. 연향 의궤의 문반차도는 19세기 왕실 연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며 이후 연향의 규범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19세기 전반 의궤 반차도의 화풍은 183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경향을 보인다. 각종 수레와 가마를 사람과 함께 일체형으로 제작한 인각과 깃발 인각 등이 대폭 늘어나고, 명료한 이목구비와 윤곽선, 풍성한 소매와 옷자락, 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이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정확하게 계화로 작도된 신련이 선보인다. 도식적이던 기존 의궤 반차도 화풍을 일변시킨 원인을 19세기 전반 궁중회화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하였다. 이 시기

<sup>68</sup> 『宗廟永寧殿增修都監儀軌』下(奎14226-2), p. 227; 강관식, 앞의 책, pp. 61-62.

왕실의례에서 중요 비중을 차지한 연향 의궤의 목판인쇄 작업 이후 일체형 인각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수많은 인원이 등장하는 궁중 연향도와 각종 길상적 화제의 그림 작업을 차비대령화원들이 주도하면서 화원 전반의 인물 조형력이 향상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대규모 궁궐 역사와 궁궐도 제작 과정에서 향상된 화원들의 계화 역량이 사실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신련 인각 제작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제어(Key Words)** 왕실의례(Royal Rites), 궁중연향(Court Banquet), 의궤(*Uigwe*, Records of the State Rites), 반차도(*Banchado*, Rank-positioned Procession Painting), 의궤 반차도(*Uigwe Banchado*, Banchado Included in *Uigwe*), 分兒班次圖(*Buna Banchado*, Authorized Banchado for a Practice Manual), 문반차도(*Munbanchado*, rank-positioned chart), 인각채색법(Small Wooden Monoblock Prints & Painting Technique), 화원(*Hwawon*, Court Painters of the Joseon Dynasty)

■ 투고일 2015년 8월 31일 | 심사개시일 2015년 9월 3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0월 16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24일 ■

## 참고문헌

### 1. 사료

『己丑進饌儀軌』(奎14370).

『盧尙樞日記』2.

『戊申進饌儀軌摠目』(奎14372-1).

『受爵儀軌二』(奎14361-2).

『純祖國葬都監儀軌』1·2(奎13669-1·2).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上·下(奎13122-1·2).

『純祖實錄』 권18, 권25-권28.

『承政院日記』 1460책.

『[翼宗]代廳時日錄』(奎12842) 22책.

『慈慶殿進爵整禮儀軌』上·下(奎14535-1·2).

『莊獻世子永祐園遷奉都監儀軌』4책(奎13624-4).

『宗廟永寧殿增修都監儀軌』下(奎14226-2).

『憲宗孝定王后嘉禮都監儀軌』上(奎13143-1).

『惠嬪喪禮都監儀軌』1(奎13608-1).

『孝明世子嘉禮都監儀軌』上(奎13130-1).

『孝明世子禮葬都監儀軌』1·2(奎13718-1·2).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1(奎13649-1).

『訓局謄錄』 49(장서각 K2-3400\_053).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http://uigwe.museum.go.kr/banchado/banchaKind>)’ 사이트.

### 2. 단행본 및 도록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상, 돌베개, 2001.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조 행사기록화』, 2011.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 세시기』 Ⅲ, 2007.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I, 2010.

박소동 역, 『국역 가례도감의궤』, 민족문화추진회, 1997.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홍선표, 『조선시대 회화사론』, 문예출판사, 1999.

### 3. 논문

- 김정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의궤 도식 목판」, 『고궁문화』 2, 2008, pp. 115-142.
- 김중수, 「규장각 소장 연향 관련 의궤 고찰」,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pp. 3-23.
- 박은순, 「朝鮮時代 王世子冊禮儀軌 班次圖 研究」, 『韓國文化』 14, 1993, pp. 553-612.
- \_\_\_\_\_, 「朝鮮 後期 進饌儀軌와 進饌儀軌圖」, 『民族音樂學』 17, 1995, pp. 175-209.
- \_\_\_\_\_, 「조선후기 의궤의 판화도식」, 『국학연구』 6, 2005, pp. 249-308.
- 박정혜, 「朝鮮時代 冊禮都監儀軌의 繪畫史的 研究」, 『韓國文化』 14, 1993, pp. 521-551.
- \_\_\_\_\_,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 9, 1995, pp. 203-290.
- \_\_\_\_\_, 「19세기 궁중연향과 궁중연향도병」, 『조선시대 진연진찬진하병풍』, 국립국악원, 2000, pp. 221-237.
- \_\_\_\_\_, 「『華城城役儀軌』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93, 2002, pp. 413-471.
- \_\_\_\_\_, 「19세기 궁궐 계획과 <동궐도>의 건축 표현」, 『동궐』, 동아대학교박물관, 2012, pp. 254-271.
- \_\_\_\_\_, 「제1부 궁중 장식화의 세계」, 박정혜 외,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2012, pp. 11-182.
- 신병주, 「조선시대 儀軌 편찬의 역사」, 『조선시대사학보』 54, 2010, pp. 269-300.
- 안휘준, 「韓國의 宮闕圖」, 『東闕圖』,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1, pp. 21-62.
- 오수창, 「『자경전진작정례의궤』 해제」, 『慈慶殿進爵整禮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 유새롬, 「외규장각 의궤의 현황과 특징」, 『조선왕조 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2012, pp. 142-181.
- 李成美, 「藏書閣所藏 朝鮮王朝 嘉禮都監儀軌의 美術史的 考察」, 李成美·姜信沆·劉頌玉, 『藏書閣所藏 嘉禮都監儀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33-116.
- \_\_\_\_\_, 「朝鮮王朝 御眞關係 都監儀軌」, 李成美·姜信沆·劉頌玉, 『朝鮮時代御眞關係都監儀軌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 1-136.
- \_\_\_\_\_, 「외규장각 의궤의 문화사적 의의」,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국립중앙박물관, 2011, pp. 256-291.
- 장진성, 「<동궐도>의 성격과 회화사적 의의」, 『동궐』, 동아대학교박물관, 2012, pp. 272-285.
- 정경희, 「英祖의 禮學」, 『규장각』 25, 2002, pp. 201-226.
- \_\_\_\_\_, 「1822년(순조 22) 綏嬪 朴氏의 죽음과 徽慶園園所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1, 서울대학교규장각, 2003, pp. 472-473.
- 정병모,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板畫史的 研究」, 『文化財』 22, 1989, pp. 96-121.
- 정영미, 「朝鮮後期 郭汾陽行樂圖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제송희, 「18세기 행렬반차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273, 2012, pp. 101-132.

\_\_\_\_\_, 「조선시대 儀禮 班次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조인수, 「서궐도안」, 『한국의 옛 지도』, 문화재청, 2008, pp. 390-391.

## 국문초록

조선시대 기록화의 하나인 반차도는 보통 前例에 따라 제작되었으므로 도식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19세기 전반은 왕권 약화와 세도 가문의 정국 주도, 사회적 모순 심화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 반차도는 전체 의궤 반차도의 역사에서 행렬이 가장 장대해지며 조형적인 완성도와 사실성, 세련미 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준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들 특징이 이 시기 왕실의례의 성격 및 궁중회화 상황의 소산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의궤 반차도를 통해 이 시기 기록화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먼저, 순조가 존왕적 예학 전통을 따라 왕실 흥례를 성대히 거행하는 과정에서 흥례 관련 반차도들이 특별히 제작되었다. 조모인 혜빈 홍씨의 襄禮, 생모이자 후궁인 수빈 박씨 등 왕실 어른과 효명세자 예장에서 제작된 관원용 분야반차도와 사묘에 이들의 신주를 모시는 반차도들은 순조의 강력한 의지 아래 제작된 것들이다. 다음으로, 18세기와는 달리 가례에서 어린 왕의 친영 행렬에 대규모 시위군이 동원되어 위의를 드러내었고, 반차도에서 시위군 행렬이 시각화됨에 따라 행렬의 길이가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왕실의 연향에서는 국왕 시위와 정재 및 음악 관련 사항을 시대에 맞게 시각화한 새로운 행사 계획도로서 문반차도가 제작되었다. 연향 의궤의 문반차도는 19세기 왕실 연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며 이후 연향의 규범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19세기 전반 의궤 반차도의 화풍은 183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경향을 보인다. 각종 수레와 가마를 사람과 함께 일체형으로 제작한 인각과 이전에는 손으로 그려졌던 깃발 인각 등이 대폭 늘어나고, 명료한 이목구비와 윤곽선, 풍성한 소매와 옷자락, 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이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정확하게 계화로 작도된 神輦이 선보인다. 도식적이던 기존 의궤 반차도 화풍을 일변시킨 원인을 19세기 전반 궁중회화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하였다. 이 시기 왕실의례에서 중요 비중을 차지한 연향 의궤의 목판인쇄 작업 이후 일체형 인각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수많은 인원이 등장하는 궁중 연향도와 각종 길상적 화제의 그림 작업을 규장각 차비대령화원들이 주도하면서 畵員 전반의 인물 조형력이 향상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대규모 궁궐 역사와 궁궐도 제작 과정에서 향상된 화원들의 계화 역량이 사실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신련 인각 제작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Uigwe Banchado*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Jae Song-hee \***

As a documentary painting from the Joseon Dynasty, *Banchado* (rank-positioned procession painting) reveals a strongly schematic and conservative tendency as it was generally produced in accordance with preceding traditions.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the Joseon Dynasty can be characterized by weakened royal authority, political domination by influential families, and intensified social injustices. However, *Banchado* produced during this period features the grandest procession in the entire history of *Uigwe Banchado* (*Banchado* included in *Uigwe, Records of the State Rites*) and the highest level of compositional completeness, precision and refinement. This article aims to highlight the notion that such characteristics are resulted from the distinct nature of royal rites and the royal paintings during this period.

Firstly, the reign of King Sunjo saw the arrangement of royal funeral ceremonies on a grand scale according to royalist ritual traditions. It resulted in the special production of a number of *Banchado* depicting funeral ceremonies. Sunjo's strong determination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creation of the series of *Buna Banchado* (official *Banchado* used as a practice manual). Including the *Buna Banchado* produced during the funerals of King Sunjo's grandmother Lady Hyegyeong, the *Buna Banchado* for the funerals of his own mother and royal concubine Lady Park, and Prince Hyomyeong are produced on a large scale. And also *Banchado* depicting the procession for placing royal mortuary tablets at shrines were

---

\* Academy of Korean Studies

produced on a similar scale. Secondly, unlike the auspicious ceremonies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royal wedding procession for the young king was accompanied by a large detachment of royal guards to demonstrate the prominence of royal authority. It added to the length of the procession in compliance with the greater number of royal guards. Lastly, *Munbanchado* (a written *Banchado* in the format of a rank-positioned chart) was newly produced for court banquets as an event plan that visualized the elements related to escorting the king, court entertainment, and musical accompaniment according to the demand of the era. *MunBanchado* in *Uigwe* for court banquets have significance in the way that it aptly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nineteenth century court banquets and served to establish norms for subsequent court banquets.

The painting style of *Uigwe Banchado*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began to develop a new trend. Its turning point was 1830. From then on, we can see considerably larger number of figures that is painted by woodblock prints depicting figures of people along with a variety of carts, palanquins and flags in the *Banchado*. And also we can see a number of people with clear facial profiles and contours, elaborate sleeve and hem details, featured natural physical gestures and carts carrying mortuary tablets accurately drawn in the form of a ruled-line painting in the *Banchado*. The causes behind the drastic transition of the existing schematic painting style of *Uigwe Banchado* we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court paintings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Following the wood-block printing of *Uigwe* for court banquets, which was crucial to court rites at that time, small wooden monoblock prints began to be used more frequently. Court painters on temporary transfer at Kyujanggak took the lead in drawing court banquet paintings that features multitudinous people. This circumstance can reflect on the advance of overall ability of the court painters to illustrate human figures. Also, court painters' skill in drawing ruled-line paintings increased in the course of constructing large-scale palace buildings. A high level of achievement required in producing large screen paintings of palace buildings seems to have led to a high degree of realism in wood carvings of funeral carts.